

養蠶經驗撮要와 牛疫方の 吏讀의 研究

安 秉 禧*

- | | |
|--------------------|-------------|
| I. 序 言 | 3. 副詞類 |
| II. 資料와 그 性格 | IV. 用言類의 吏讀 |
| III. 助詞・體言・副詞類의 吏讀 | 1. 語 尾 |
| 1. 助詞類 | 2. 語 幹 |
| 2. 體言類 | V. 結 語 |

I. 序 言

吏讀가 國語史研究에 기여하는 重要性은 異論의 餘地가 없다.⁽¹⁾ 그러므로 그에 대한 상당한 業績이 있다.⁽²⁾ 그 때까지 볼 수 있었던 資料를 착실히 조사하여 吏讀를 字畵, 또는 宇音에 따라 分類・說明하고 있다. 그런데 그 說明이 하나같이 18, 19世紀의 儒胥必知 등 吏讀資料에 좇아서 解讀한 뒤에 文脉을 고려하여 意味內容을 解說하는 方式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問題가 있는 것이다.

아는 바와 같이 儒胥必知 등에서 한글로 표기된 解讀은 口傳되던 것이 定着된 것이다. 訛傳과 誤記에 의한 誤讀, 그리고 비교적 정확히 傳承되었다 할지라도 音韻變化를 입은 解讀인 것이다. 같은 吏讀가 책에 따라 전혀 달리 解讀되고 있는 理由가 바로 여기 있다. 이들 한글表記는 면밀한 檢討를 거쳐서 解讀에 參考되어야 할 資料인 것이다. 다음 意味內容이 文脉으로 파악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形態分析으로써 吏讀의 構成을 解明하여야 그 意味도 분명해질 것이다. 形

*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敎授, 『國語學』

(1) 여기 吏讀란 用語는 종래 쓰여온 바와 같이 좁은 뜻으로 사용한다. 곧 漢字로써 漢字語와 固有語를 國語의 語順에 따라 混用한 文章에서 漢字, 정확히는 借用된 漢字로 표기된 固有語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語順은 물론이고 漢字語에 대한 研究도 그 文章 내지는 固有語를 解釋하는 데 必須의이다. 이 글에서 좁은 뜻으로 한 것은 순전히 研究의 便宜를 위한 것이다.

(2) 그 중요한 것만 적으면 다음과 같다. 하나하나 註記할 수는 없었지만, 이 글을 쓰면서 늘 利用한 책들이다. 이에 적어 심심한 謝意를 표한다.

小倉進平, 鄉歌及吏讀의 研究, 서울, 1929, pp. 271—506/ 中樞院, 校訂大明律直解, 서울, 1936, 특히 吏讀略解, pp. 25—121/ 장지영・장세경, 이두사전, 서울, 1976.

態分析이 우선은 표기된 借字에 의하더라도, 좀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業績에서 일어나는 보다 根本的인 問題는 수집된 吏讀과 그 解讀이 무엇을 意味하는가 하는 점이다. 가령 「爲齊」가 「하저」, 또는 「하제」라고 解讀되고 있지만, 그 解讀은 어느 時期의 言語를 反映하는가에 대한 反省이 없었던 것이다. 한글이 創制된 15世紀의 國語인지, 아니면 羅麗吏讀란 한글表記의 한 資料의 이름과 같이 新羅와 高麗의 言語인지 분명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극단적으로는 한글解讀의 無意味함을 말할 수도 있다.⁽³⁾ 또 한 걸음 나아가서 표기된 吏讀 자체의 年代도 考慮되어야 한다. 한 例로 14世紀末의 大明律直解와 近代의 여러 古文書에 나타나는 吏讀을 同一하게 다루는 일은 無謀한 것이다. 吏讀가 강한 保守性을 보이기는 하지만, 年代에 따른 變化도 안 보이는 것은 아니다. 작은 變化라도 明示되지 않아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吏讀에 관한 研究는 이러한 問題點을 止揚하는 方向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수집된 吏讀에 대하여 그 年代를 분명히 밝히고서 形態分析으로 그 構造를 解明하도록 할 것이다. 거기서 다시 그것이 反映하는 語形을 究明하여야 한다. 同時に 새로운 資料를 發掘하여 이 作業을 넓혀 가게 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結果에서 吏讀는 國語史研究에 正當하게 利用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글은 刊年이 분명한 養蠶經驗撮要和 牛疫方의 吏讀를 對象으로 하여 그러한 作業을 試圖하려고 한다. 그러나 吏讀가 표기한 語形의 究明은 現在의 우리도 能力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다. 吏讀를 수집하고 그 構造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없다. 形態分析이 철저히 못하므로 그것조차 概略的인 것이다. 극히 基礎的인 作業인 셈이다.

II. 資料와 그 性格

먼저 對象으로 하는 吏讀가 나타나는 養蠶經驗撮要和 牛疫方에 대하여 書誌的인 解說과 그 책의 吏讀에 의한 翻譯에 대하여 說明하여 둔다. 吏讀의 年代와 性格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養蠶經驗撮要(이하 撮要로 略稱)는 1卷 1冊으로 李謙魯氏소장이다. 唯一本으로서 이 책은 처음 1965年 李光麟교수에 의하여 紹介되었는데, 1974年 書誌學 第6號에 全卷이 影印되어 그 內容이 알려져 있다.⁽⁴⁾ 우리의 研究도 이 影印本으로써 행한다.

撮要가 1415年(太宗 15)에 처음 刊行되었음은 책 끝에 있는 刊語에 의하여 분명하다. 그러나 現在의 이 책이 바로 그 刊本이라 하기에는 주저되는 事實이 있다. 첫째 版式과 版刻筆致가 서로 다른 板이 섞여 있다. 즉 대개 四周雙邊이지만, 張 18, 36, 39 등은 四周單邊이다. 補板이 있

(3) 이것의 지나친 誇張은 禁物이다. 어떤 吏讀를 말할 때, 한글解讀에 따라서 이름부르는 일은 필요하다. 無意味란 國語史의 見地에서 말한 것이다.

(4) 李光麟, 「養蠶經驗撮要」에 對하여, 歷史學報 28(1965), 참조. 影印本에도 李光麟·李基文교수의 解題가 있어 參考가 된다.

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刊語가 2張이나 있는데, 글자의 出入이 있으나 內容은 비슷하다. 張 42, 44가 그것이다. 原刊本이라면 1張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중 1張은 後代에 잘못 補板하여 重複된 것이라 생각된다. 세째 모두 黑魚尾이나, 張 43 上魚尾는 三文魚尾다. 三文魚尾는 16世紀以後의 刊本에 보이므로, 이 책을 14世紀初의 原刊本 그것이라 할 수는 없다. 네째 李光麟교수도 지정한 바와 같이 缺張이 白紙로써 補綴되어 있는데, 그 紙質이 다른 張의 紙質과 같다. 筆者의 印象으로는 壬辰亂以前의 紙質로 보이므로, 이 책이 原刊本은 아니라 하더라도 壬辰亂以前 印出本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補板과 三文魚尾로 보아서 16世紀의 책이라 할 것이다.

책의 體裁는 原文에 이어서 1字 낮추고 行을 달리하여 吏讀로 翻譯한 文章을 싣고 있다. 原文에는 1字 낮춘 註釋文도 있으므로 翻譯文은 결국 2字를 낮춘 것이다. 翻譯文도 大明律直解와 牛疫方の 경우와 같이 줄글로 되어 있으나, 오직 9b—10a의 한 翻譯文은 句節이 끝난 곳을 1字씩 띄운 곳이 있다. 三國遺事와 均如傳의 鄉歌가 이와 같은 方式으로 記載된 점에서, 이 例外的 翻譯文이 偶然的 所致만은 아닐 것이다. 借字에 의한 國語表記에 그러한 傾向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요약해 말한다면, 이 撮要는 16世紀의 印出本으로서 後代の補板도 있으나, 거기 나타나는 吏讀는 原刊本の 그것이라 보아 무방한 것이다. 版刻 筆致가 14世紀의 것이므로, 補板도 충실한 模刻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간혹 判讀하기 어려운 곳이 欠이라 할 것이다.

다음 牛疫方은 略稱인데 正式書名은 內題와 같이 牛馬羊猪染疫治療方이다. 日本宮內廳書陵部 소장이다. 簡易辟瘟方(이하 辟瘟方이라 略稱) 뒤에 合綴되어 있다. 辟瘟方과는 版式, 紙質까지 같은 乙亥字本이다. 同時에 校書館에서 刊行된 것이라 斷定된다.

이 辟瘟方은 國內에도 高麗大學校圖書館, 故金完變氏 소장이 알려져 있다. 辟瘟方은 1525年(中宗 20 嘉靖4)에 처음 刊行되었으나, 이들 책은 모두 1578年(宣祖 11 萬曆 6)의 重刊本이다.⁽⁵⁾ 첫째 內賜本인 故金氏소장本の 內賜記 年代인 1578年 그대로 刊年을 잡아야 하며, 둘째 이들에는 旁點이 없는데, 이러한 사실은 校書館에서 刊行된 16世紀初 諺解本에는 안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合綴된 牛疫方の 原刊은 1541年(中宗 36 嘉靖 20) 이므로 辟瘟方の 刊年을 1525年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牛疫方도 이 辟瘟方과 같이 1578年版이라 생각된다. 실제로 1636年 이 1578年版을 校書館에서 覆刻(곧 後述된다)하면서 崔鳴吉이 跋文을 썼는데, 그 一節에 1578年の 한 內賜本이 版下가 되었음을 明記하고 있는 것이다.⁽⁶⁾

今上 14年丙子夏 平安黃海兩道牛疫大熾 至秋猶不止 延入京畿 以及湖西 朝廷患之 工曹參判尹穀立 出其先人所藏內賜諺解馬牛治療方一冊 乃嘉靖 20年奉教撰著 而萬曆 6年又因牛疫再刊 以頒者也 司僕寺提

(5) 高大소장의 辟瘟方은 高大民族文化研究所의 民族文化 7(1973)에 影印되었다. 거기 실린 朴炳采교수의 解題에는 原刊本이라 하였으나, 우리는 그에 따르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6) 三木榮, 朝鮮牛疫史考, 朝鮮學報 34(1965), p. 10에서 再引.

調李曙見大喜 具由以聞 上即付校書館 印布中外.

牛疫方은 우리의 1678年版 이외에 原刊本(또는 그 覆刻本)이라 믿어지는 책과 後代의 重刊本이 알려져 있다. 前者는 現在 日本에 1部 있는데, 書名이 牛羊猪染疫治療方(馬字가 脫落)이라 되어 있고 한글에 旁點表記도 있다고 한다. 後者는 國內外에 散見되는 것으로 1636年(仁祖 14 崇禎 9)版과 1644年(仁祖 22 順治 1)版이 있고, 1636年版에 다시 海州版(8月開刊)과 校書館版(9月開刊 崔鳴吉跋이 있음)이 있다.⁽⁷⁾ 모두 1578年版的 覆刻本인데, 校書館版은 언뜻 보면 同一版이라 느껴질 정도로 충실한 覆刻인 것이다. 글 內容의 差異는 없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1578年版 牛疫方에 나타난 吏讀을 對象으로 한다. 原文에 이어서 1字씩 낮추고서 각각 吏讀과 한글로 된 翻譯文이 있다. 하나의 原文을 이와 같이 두가지로 翻譯한 諺解本은, 卷頭의 權應昌序가 吏讀로 된 점과 함께 例가 거의 없다. 序가 啓文의 形式인 데 吏讀翻譯까지 실린 理由가 있지 않은가 하나, 그것은 어떻게 吏讀의 意味把握에 여간 편리한 資料가 아니다. 吏讀가 1578年版에 나타난 것이나, 한글과는 달리 1541年의 原刊本과 같으리라 생각된다. 吏讀로 된 序가 그때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 두 책의 吏讀에 의한 翻譯을 살펴보기로 한다. 結論부터 말한다면 逐字譯이 아니라, 意譯이라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原文의 一部를 無視하는 일이 없지 않으나, 대개의 경우 原文에 없는 內容을 補充하여 翻譯하고 있다. 이러한 補充은 撮要가 심한 편이다. 그 端的인 例를 收種에 관한 原文과 註釋에 이은 翻譯文의 對照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⁸⁾

收種藺 必取居族中者(近上絲薄 近地子不生也)一蠶子收取高致乙 須只 蠶薪中間良中造作爲乎 高致乙摘取爲臥乎事段 薪頭上良中 造作高致段 懶惰蠶矣 所作是齊 薪下末良中 造作高致段 殘病蠶矣 所作是乎等用良 種子良中 合當不得(蠶 2)

註釋에 該當되는 翻譯이 상당히 달라진 것이다. 翻譯文이 보다 具體적이고 說得力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例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 특히 浴連(蠶8a)과 苦薦(蠶15b)에 관한 것은 翻譯이라기보다는 오히려 吏讀에 의한 說明文이 되어있다. 이와 같은 程度는 아니나 牛疫方의 경우에서도 補充은 있다. 原文「灌之」에 대한 翻譯을 吏讀과 한글로써 보이면 알 수 있다. 「牛口」가 補充되어 있다.

牛口良中 灌注爲乎事一이베 보으라(牛 1a, 1b, 등)

이러한 翻譯樣式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아마도 原典의 性格에 말미암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들은 原文의 1字도 소홀히 할 수 없는 經典이 아니라, 養蠶과 牛疫治療에 관한 知識만

(7) 小倉進平, 增訂朝鮮語學史, 東京, 1940, pp. 334—37 및 三木榮, 前掲論文과 朝鮮醫書誌(增補版), 大阪, 1973, pp. 262—66 참조

(8) 引用文의 略號는 撮要를 蠶, 牛疫方을 牛로 한다.

을 傳達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大明律直解도 마찬가지여서, 翻譯文에 原文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制度가 露出되기도 한다. 理由는 어떻든 그러한 結果, 이 글에서 다루는 吏讀가 翻譯이라고 하여 當時의 다른 吏讀와 判異한 性格이 아닌 것을 알 것이다. 다시 말하면 撮要和 牛疫方の 吏讀는 각각 15世紀와 16世紀의 初期 吏讀資料라 할 것이다.

Ⅲ. 助詞・體言・副詞類의 吏讀

모든 吏讀는 單語를 單位로 하여 類別하고 說明하려고 한다. 예컨대 「不冬爲臥乎事」는 먼저 「不冬, 爲臥乎, 事」의 세 單語로 分節된다. 이 作業에서는 「有等以」를 三分하는 것과 같이 可能한 한 細分하도록 하였다. 모든 構成은 복잡하고 큰 것보다 간단하고 작은 單位에서 더 잘 究明되리라 믿기 때문이다.

單語의 分類는 助詞類, 體言類, 副詞類, 그리고 用言類로 한다. 各類에 속하는 吏讀는 다시 分類되어 配列된다. 즉 助詞類는 格助詞와 補助詞, 體言類와 副詞類는 借字의 性格에 따라서 配列된다. 그러나 用言類는 語幹과 語尾로 다시 分析하여, 그것을 單位로하여 配列된다. 形態素를 표기한 借字를 하나의 單位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分類와 分析은 吏讀의 個別的인 說明을 위한 方便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엄격한 分類가 아니다. 그 예로써 副詞類에는 用言類에 소속시켜야 될 吏讀도 있는 것이다. 다음 分析에 있어서도 하나의 借字로 표기된 形態素의 結合까지는 分析하지 않았다. 吏讀가 표기한 語形까지 밝힐 수 없는 지금의 與件으로는 借字로써만 吏讀는 配列될 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說明에서 그 불충분한 分析을 보완하려고 하였다. 單語를 單位로 배열한 體言類와 副詞類의 吏讀에 대한 分析도 전혀 그러한 方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1. 助詞類

助詞는 格助詞와 補助詞의 順으로 說明하기로 하고, 그 안의 配列은 慣例에 따른다.

- (1) [亦] 主格을 표시한다. 中世國語, 정확히 15.16世紀의 한글 表記에서 「이」로 나타나는 助詞에 해당한다.

種子—在紙時乙良(蠶 1b), 蠶—初出爲去等(同上); 牛疫—(牛序 2a)

- (2) [是] 위의 「亦」과 같이 主格을 표시한다. 牛疫方에는 보이지 않고, 撮要에서만 나타난다. 變色亦 第一日十分中 如灰色— 三分改變爲去等(蠶 18a), 其矣 身力亦 蠶子一二兩量養飼人— 貪心以三四兩乙 養飼爲在如中(蠶 22b)

用例를 보면 이른바 二重主語의 둘째 主語에 連結되어 있다. 여기서 繫辭語幹「是」와 비슷한 位置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主格助詞「亦」에 대하여 새로이「是」가 登場하는 理由가 여기 있지 않은가 한다. 그런데 撮要에서도 같은 位置에「亦」이 나타난다.

蠶亦 十分中九分一 老熟爲去沙(蠶 35b)

- (3) [矣] 屬格을 표시한다. 中世國語의「의」에 해당된다. 動名詞의 主語를 표시하는 機能을 갖는 점까지 同一하다.

蠶一本性(蠶 1b), 懶惰蠶一 所作(蠶 2a); 牛果馬一 交相傳染病(牛 1a)

「前」에 連結되어「前者의, 앞서의」의 뜻으로 쓰인다. 하나의 慣用語다.

前一紙重兩數良中 種子兩數書寫(蠶 1b); 前一啓下治療方法外(牛序 1b)

- (4) [良中] 處格을 표시한다. 中世國語의「에」에 해당된다. 中世國語의「에도」처럼 補助詞「置」앞에 나타나는 일도 있다.

蠶薪中間一(蠶 2a), 空地一(蠶 5a); 牛馬口一(牛 1a), 水五升一(牛 10a)

- (5) [亦中] 撮要에만 나타나는데, 處格을 표시한다. 中世國語의 與格助詞「게」(「의게」), 또는 그 變種인「에」(이에, 그에)의「에」에 해당한다.⁽⁹⁾ 大明律直解등에서 꼭같이 쓰인다.

此一(蠶 14a), 不冬爲乎第一(蠶 4a), 薄紙是乎第一(蠶 4a)

- (6) [矣] 위 3과 같은 借字지만, 處格을 표시한다. 中世國語의 屬格助詞「의」의 形態가 處格助詞로도 쓰이는 것에 해당된다. 牛疫方에만 나타나는 데, 吏讀로서는 새로운 用法에 속한다. 물론 後代 古文書에는 用例가 있다.

湯水一淋授(牛 2a), 酒一 調和爲良(牛 5b)

- (7) [乙] 對格을 표시한다. 中世國語의「을」에 해당한다. 보통 單獨으로 나타나지만, 副詞「用良, 仍于」와 補助詞「沙」의 앞에도 쓰인다.

水氣一(蠶 1a), 爲在一用良(蠶 4a); 傳染病一(牛 1a, 1b)

- (8) [以] 具格을 표시하고, 中世國語의「으로」에 해당한다.

杷子一(蠶 4a), 柴草一(蠶 5b), 不冬爲臥乎在等一(蠶 37a); 彈子樣一(牛 4b)

- (9) [果] 共同格을 표시한다. 中世國語의「과」에 해당한다. 다른 格助詞 앞에 나타나는 일도 있다.

黑文黑身黑頭一(蠶 4a); 千金木一葉一乙(牛 3b)

- (10) [隱] 中世國語의 補助詞「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隱」은 극히 제한되어 나타난다. 主題 表示에는「段」이 쓰이고, 「隱」은 主格 表示에 쓰이고 있다.

兩頭尖細者一雄(蠶 3b), 養飼度數多者一(蠶 23b)

- (11) [乙良] 中世國語 補助詞「으란」에 해당한다. 單獨으로 쓰이지만, 補助詞「置」앞에 나타나는 일도 있다.

(9) 이「亦中」이 中世國語의「에」와 같은 形態의 表記가 아니다. 「亦中」이 기대되는 環境에서「良中」이 나타난 다음例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즉 後日生蠶養蠶時良中置(蠶 6a)

種子亦 在紙時一 極寒爲只爲 使內齊(蠶 1b), 爲在一(蠶 7a), 蠶子變色一置(蠶 16b); 糞一 勿用爲乎事(牛 2b), 病始作不冬者一置(牛 3a)

- (12) [段] 主題를 표시하는 補助詞다. 現代國語 「이란(것은)」에 해당된다. 大明律直解에는 「叱段」이 나타난다. 뒤에 말할 「叱分, 分」으로 보아 表記上의 差異에 지나지 않는다.

蠶一 陽物是乎等用良(蠶 1a); 賣去藥材一置 皆是鄉藥易得之物 不足爲白去等(牛序 1b)

- (13) [置] 中世國語 「도」에 해당하는 補助詞다. 助詞와 副動詞 뒤에도 나타난다.

蠶生一(蠶 16b), 養蠶時良中一(蠶 6a), 數多爲良一(蠶 38a); 藥名乙良一(牛序 2a)

- (14) [沙] 中世國語의 強勢를 뜻하는 補助詞 「샤」에 일치한다. 그러나 우리의 資料에서는 單獨으로 나타나는 일이 없다. 다른 助詞, 또는 副動詞 뒤에 쓰일 뿐이다.

飛介上良中 造作者乙一 擇取爲乎喻尼(蠶 3a), 各別養飼爲良一 眠起一齊(蠶 6a); 多有染斃之處爲白一餘良(牛序 2a)

- (15) [叱分, 分] 中世國語 「뿐」에 해당하는 補助詞다. 叱은 ㅅ에 완전히 일치하는데, 表記에서 省略되는 일이 있다. 바로 이 助詞가 大明律直解에서도 두 가지 表記로 나타나는 것이다.

桑葉叱分(蠶 1a), 乾死分不喻(蠶 10a); 牛叱分不喻(牛序 2a)

- (16) [每如] 中世國語 補助詞 「마다」에 완전히 일치한다.

蠶食給後一(蠶 25a), 移蠶時一(蠶 27b)

2. 體言類

體言인 吏讀은 借字에 따라 兩分할 수 있다. 訓讀字에 의한 表記와 音讀字에 의한 表記가 그 것이다. 이 方法은 이들 吏讀가 완전히 解明된 뒤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不完全하지만 儒胥必知 등의 한글解讀을 援用한다면, 概略的인 分類는 可能하다. 이리하여 여기 訓讀字와 音讀字의 順序로 說明하기로 한다. 音讀字의 경우는 非義借에 의한 吏讀부터 먼저 配列된다.⁽¹⁰⁾

- (17) [空石皮] 中世國語의 「섞거적」(三綱孝 14a)에 해당한다. 「空石」은 現代의 辭典類에도 「섞거적」이라 註釋되어 登錄되어 있다. 15世紀의 農事直說에 「蒿篇 鄉名空石」(1a, 4a)이라 있다. 같은 例다.

薦段 一是置有亦(蠶 15b)

- (18) [其] 中世國語의 「저」에 해당되는 單語다.

一矣 身力(己力 蠶 22b)

- (19) [歧枝] 中世國語의 「가지」(枝)에 해당된다. 歧는 「歧如, 歧只」와 같은 副詞에 나타난다.

桑條一良中(蠶 12b), 有一爲只爲 斫取削正(蠶 12a)

(10) 非義借와 義借, 訓讀字와 音讀字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할 것.
筆者, 中世國語口訣의 研究, 서울, 1977, pp. 113—114

- (20) [同] 中世國語에서 해당되는 單語를 찾을 수 없으나, 後代 吏讀資料의 한글表記는 「오힌」 등으로 나타난다. 「위의, 같은, 그」의 뜻이다. 附加語의 으로 쓰인 것이다.

爲篩有去等 一篩以(蠶 29a)

- (21) [等] 中世國語의 形式名詞 「ㄷ」에 해당한다. 반드시 對格助詞를 支配하는 「用良, 仍于」앞에도 나타나는 점으로 보면, 對格形 「ㄷ」에도 대응하는 表記인 것으로 생각된다.

爲去有一以(蠶 37a), 爲臥乎在一以(蠶 37a), 爲臥乎一用良(蠶 13a), 爲臥乎一仍于(蠶 27a)

名詞 「ㄷ」에 繫詞가 연결된 「디」를 표기한 吏讀가 따로 있다. 借字 「噀」로 표기된다. 귀중한 예인 것이다.

擇取爲乎一尼(蠶3a)

- (22) [事] 中世國語의 「일」에 해당한다. 動名詞와 結合되어 文尾에 나타나는 일이 많아서 吏讀 文의 독특한 文體를 이루는데, 牛疫方에 그 예가 많다. 이 경우 「爲乎」와 結合되면當爲, 「爲臥乎」와 結合되면 事實을 뜻한다. 前者가 命令法이라면 後者가 說明法이라 하겠다.

爲臥乎一段(蠶 2a), 爲臥乎一是良余(蠶 39b); 爲乎一(牛 1a, 1b), 爲臥乎一(牛 6a, 7a)

- (23) [所] 中世國語形式名詞 「바」에 해당한다.

爲乎一(蠶 13a, 27b), 使內乎一(蠶 40b)

- (24) [上下] 後代 資料에서 「차하, 츠하」등으로 解讀된다. 供給 또는 支出을 뜻하는 單語다.

相當藥材一資持(牛序 1a)

- (25) [上項] 後代 資料에서 「운목」으로 解讀된다. 上記, 또는 上記項目을 뜻한다.

一諸畜染疫治療方文(牛序 2b)

- (26) [第] 中世國語의 「자히, 재」, 現代國語의 「제, 채」에 해당된다. 動名詞에 結合한 경우에는 「제, 적」(時)에 해당된다.

蠶生三日一(蠶 29b, 30a), 爲乎一亦中(蠶 10a, 27b), 使內乎一亦中(蠶 28a)

- (27) [次知] 後代 資料에는 「츠지」로 解讀되어 있으나, 中世國語의 「마슴알一」(擔當)에서의 派生名詞 「마슴아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次」의 한 釋이 「마음」(類合上 3a)인 것도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蠶種一洗浴(蠶 10a); 權應昌一啓(牛序 3a)

- (28) [向事] 위 22 「事」와의 合成語인데, 後代 資料에 「안일」로 解讀되어 있다. 現代國語의 「하려는 일, 할 일」에 해당한다. 向은 어떤 動名詞의 表記라고 생각된다. 後考를 기다린다.

点火一段 不緊爲沙餘良(蠶 25b), 食桑一以 茅上良中 並只移上(蠶 38b)

- (29) [高致] 中世國語의 「고티」(藪)를 音讀借字로 표기한 것이다. 撮要의 特殊한 資料의 性格으로 나타난 예다.

蠶子收取一(收種藪 蠶 3a), 種子一(蠶 3a)

- (30) [飛介] 中世國語의 「놀애」(法華 Ⅱ 10a)에 對應된다. 現代 方言에 「날개, 나래」가 있다. 飛는

訓讀, 介는 音讀되었으나, 모두 義借가 아니다. 農事直說에도 나타난다. 즉, 「苦薦 鄉名飛介」(1b)

一上良中(苔草上 蠶 3a), 苦段一是齊(蠶 15b)

- (31) 「式」體言에 連結되는 一種의 接辭이나, 獨立시켜 表題語로 한다. 中世國語에서는 보통 「곰」으로 나타난다. 大明律直解에는 「式」이었으나, 이 牛疫方을 포함하여 16世紀 한글 文獻에 「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二兩一作一服爲乎矣(牛 12b 홀버니 두냥식 뿌덕 牛 13a)

- (32) 「波獨」中世國語「바독」의 借字表記다. 波가 非有氣音 表記의 音讀字임에 注目된다. 다음 33에 들 單語도 同一 借字를 갖고 있다.

如小一樣以(如小基子大 蠶 30a), 如大一大(如大基子大 蠶 31a)

- (33) 「波造」現代國語의 「물통」에 해당하는데, 中世國語의 한글資料에 「나모바조」(木槽 救荒撮要 5a)로 나타난다. 그 新刊本(1660年版)부터 「나모구유」(5a)로 바뀐 것을 보면, 近代國語에서 廢語化한 것이라 생각된다.

浴器…木一及瓦一等乙用良(蠶 8a)

- (34) 「佐伊」蠶沙를 가리킨다. 音讀字로서 한글表記「재」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音讀字 佐는 衿陽雜錄「長佐稷 당재피」(14b)에 보이는 것이다.

蠶矣 一乙(蠶 30a), 一矣 厚薄看審(蠶 34a)

- (35) 「記知, 遲晚, 迷惑, 方推, 常例, 樣, 委曲, 人氣, 造心, 次第」이들은 一種의 漢字語들이나, 中世國語의 한글文獻에서 다른 漢字語와는 달리 한글로表記되는 점에서 吏讀로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義借인 音讀字로表記된 單語라 하겠다. 그 用例들, 한글表記의 用例와 함께 보여 두기로 한다.⁽¹¹⁾

蠶子兩數乙 記知(蠶 20b)~記 기디기(類合下 17b)

正食時良中 遲晚養飼則(當正食 飼之不及則 蠶 26b)~디만혼 일업수니(釋詳 VI 17a)

迷惑人亦 蠶食落火傷損(蠶 25b)~어리고 미혹하야(釋詳 IX 4a)

或砧 或方推以 擣軟(蠶 21b)~몬형은 방취오(朴通上 39b)

蠶矣 眼起變色 常例是去等(蠶 26)~샹네 갓가비이서(釋詳 VI 10a)

此樣以(蠶 39b), 彈子樣以 作丸(牛 46b)~罪의 야로(釋詳 VIII 9a)

委曲藏置爲有如可(蠶 13b)~위고기 하얌직 하니(杜諺 IX 38a)

人氣乙 數數近接爲齊(蠶 17b)~인척 몬츠리고(敎簡 I 3b)

造心離去爲置(蠶 7a)~조심 아니 하다가(釋詳 IX 37a)

右取種次第以 各別養飼爲良沙(蠶 6a)~次 차례즈(類合上 3a)

名詞類를 마치면서 牛疫方의 各種藥材名에 대한 鄉名の 借字表記를 一括하여 例示하기로 한

(11) 이들 가운데는 한글文獻에서 漢字로 표기된 例도 있다. 즉, 「常例(釋詳 24a), 樣(月印 19), 委曲(杜諺·XXIV 4a), 迷惑(月印 74)」. 그러므로 「水氣(蠶 1a), 厭却(蠶 1a), 飲喫(蠶 9a), 布袋(蠶 13b)」등도 같은 範疇에 들 수 있다. 그러나 한글文獻에 한글과 漢字 어느쪽으로도 나타나는 일이 없으므로 일단 제외한다. 再考될 單語들이다.

다. 이들은 夾註로 나타나는 것이다. 原名 한글表記를 附記한다.

(36) 豆也 ㄱ 注作只 : 一(鬼曰 두야머조자기 牛 7a)

蜜乙 : 一(黃蠟 밀 牛 9a)

朴沙伊 : 一(藜蘆 박새 牛 7a)

盤蕉 : 一(芭蕉 반초 牛 8b, 11a)

眞荏子 : 一葉(靑蘘 좀배넝 牛 5a)

所乙古叱 : 一(羊蹄 솔웃 牛 3a)

松衣了叱 : 一根(菖蒲 · 石菖蒲 송의맛 불취 牛 7a, 8b)

深黃 : 一(鬱金 심황 牛 8b, 12a)

汝古里 : 一(類 너고리 牛 2b), 一古其(類肉 너고리고기 牛 1a), 一叱同(類糞 너고똥똥 牛 1a, 2a)

汝兒 : 一頭(여이머리 牛 2a), 一昌子(狐腸 여이창조 牛 1b)

朱土 : 一(赭 주토 牛 6a)

叱同 : 一(糞 똥 牛 2b), 血一(피똥 牛 6a)

昌子 : 一(肚창조 牛 2b)

血叱同 : 一(血糞 피똥 牛 6a)

火乙叱羅毛 : 一(千金木 불나모 牛 3b), 一葉(千金木葉 불나모넝 牛 4a), 產此土者名曰一津(安食香의 註 · 이자허서 나느니논 불나모진이라 牛 10a)

이 借字表記에서 注目되는 것은 첫째 音讀字가 큰 優勢를 보이는 점이다. 音讀字로는 表記가 不可能하거나 字釋이 具體적인 경우에 한하여 訓讀字가 쓰였다. 訓讀字 眞, 汝, 火와 血을 한글表記와 對照함으로써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汝가 音讀字로도 쓰인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 音讀字 叱과 乙의 用法이 注目된다. 叱이 된소리表記와 音節末 ㅅ의表記에 쓰인것은 새로운것이 아니나, 「火乙叱」의 경우처럼 ㅅ을表記한 일은 衿陽雜錄에 「臥叱多太 왁대롱」(9a)의 例가 있지만 특이하다. 그런데 이 「火乙叱」의表記는 또다른 의미에서 여간 重要的 것이 아니다. 中世國語에서 音節末 子音群이 실제로 存在하였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蜜과 火로써 각각 「밀, 불」의 音節末 ㄹ이表記되지만 乙을添記한 것과는 다르다. 이 경우는 전혀 다른 借字 乙과 叱로써 音節末 子音 하나를表記한 것이 아니라, 각각 하나의 子音 끝 두 字로 子音群이表記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鄉藥名의 借字表記는 鄉藥故急方 이래의 오랜 傳統을 갖는 것인데 이 牛疫方의 資料는 한글表記를 함께 갖는 점에서 貴重한 것이다.

3. 副詞類

副詞類에 소속된 吏讀의 特徵은 單語가 義借인 訓讀字와 非義借인 音讀字로表記되어 있는 점이다. 그 音讀字에 따라 分類하여 說明하기로 한다.

(37) [並只] 中世國語 「다못」에 해당되는副詞로 생각되는데, 「모두, 함께」의 뜻이다. 後代 한글로서는 「다모기」 등으로表記되어 있다. 起源의으로 音讀者 只가 末音節을表記하였기 때

문일 것이다.

一棄置(蠶 22a), 門窓苔薦乙 一垂下爲遣(蠶 34a); 一相考(牛 2a)

- (38) [須只] 中世國語의 「모로매, 모로미」에 해당한다. 後代의 한글資料에서도 「모름이」등으로 解讀되어 있다. 借字 只에 問題가 있으나, 現代國語「모름지기」로 비추어서 起源의으로는 「並只」와 같이 末音節을 表記하는 音讀字일 것이다.

一…高致乙 摘取爲臥乎事段(蠶 2a), 一…飛介上良中 造作者乙沙 擇取爲乎喻尼(蠶 3a)

- (39) [唯只] 中世國語 및 現代國語「오직」(唯)에 일치하는 副詞다.

一…相接不冬爲只爲 紙上布列(蠶 4a), 一…寒冷之氣無只爲使內(蠶 40a)

- (40) [曾只] 中世國語「일즉」(曾), 現代國語「일찌기」에 해당한다.

養蠶凡事乙 一豫備(蠶 13b)

- (41) [無亦] 中世國語「업시」(無), 現代正書法의 「없이」에 일치하는 副詞다. 亦은 音讀字로써 派生接尾辭를 표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絶間一 連連養飼爲乎矣(蠶 29a)

- (42) [全亦] 中世國語「전혀」(專)에 해당한다. 이 경우의 亦은 副詞形成接尾辭「一히」를 表記한 것으로 보인다.

一斷食爲齊(蠶 26b)

- (43) [至亦, 至] 中世國語의 「니르히, 니르히」에 해당한다. 當時의 한글文獻에 「지히, 至히」가 보인다. 이 吏讀과 같은 副詞다. 그런데 亦의 有無는 오직 表記上의 問題다.

至亦: 其蛾以 新反種子一(蠶 7a), 眠起一 一齊不得(蠶 18b),

至: 產在厚紙後以 十二月一(蠶 8b), 初眠以 不眠一(蠶 35a)

- (44) [便亦] 中世國語「문드시, 문득」에 해당 한다. 現代國語의 「문득」을 뜻한다. 亦은 接尾辭「一이」를 表記한 것인가 한다.

本道牛疫 至今寢息不冬 一多斃 至爲可慮是白昆(牛序 1b)

- (45) [平均亦] 亦은 漢字語에 連結되는 副詞形成接尾辭「一히」를 表記한 것이라 생각된다. 「平均」은 漢字語, 따라서 이 吏讀의 뜻은 「고르게」가 된다.

下蟻時乙良 加于造心 稀疎一 布列爲置(蠶 22a)

- (46) [虛疎亦] 위의 45와 똑같은 構成인 吏讀다. 뜻이 漢字語 그대로인 副詞다.

蠶種紙三張乙 一合爲一卷(蠶 20a)

- (47) [安徐亦] 위의 44, 45의 吏讀과 같은 構成이다. 뜻은 漢字語「安徐」그대로다. 亦이 없으면, 否定語로서 禁止를 뜻한다. (67 安徐 참조)

厚紙乙 三五度爲 一執舉爲(可提撥連三五次 蠶 7a)

- (48) [更良] 良은 副動詞語尾를 표기 하나, 여기서는 化石化한 副詞形 成接尾辭를 표기한 것이라 생각된다. 更은 起源의으로 中世國語의 「가시一」(變, 更)에 해당한다. 「다시」를 뜻하는 吏

인 것이다.

收穫後 一知重(蠶 4b); 一搗末(다시더워 牛 4b)

- (49) [導良] 위와 같은 構成이다. 뜻은 「따라, 좇아」다.

曹以治療之法 醫方相考 啓下一(牛序 1a)

- (50) [追良] 위와 같은 構成이다. 「좇아, 잇따라」를 뜻한다.

蠶矣佐伊之 暫間一手以造心分取(蠶 30a), 佐伊乙 暫間一分取(蠶 31a)

- (51) [餘良] 위 「更良」 등과 같은 構成이다. 中世國語의 「나마」(餘, 逾)에 해당하는 副詞인데, 用言과 항상 結合되어 쓰인다. 이미 文法化한것이 아닌가 한다.

不緊爲沙一(蠶 25b); 藥名乙良置 解知不得爲白沙一 轉轉謄書之際 多致誤寫(牛序 2a)

- (52) [用良] 위 「餘良」과 같은 構成이다. 언제나 對格助詞에 連結되어 쓰인다. 따라서「乙用良」으로 나타나는데, 中世國語의 「을써, 으로써」에 해당한다.

柵木椽木等乙一 平床樣以 高足造排爲遣(蠶 5a); 該事知理馬乙一(牛序 a), 蠶段 陽物是乎等一 水氣乙厭却(蠶 1a)

- (53) [加于] 于是 副詞形成接尾辭「一우」를 표기한 것이라 생각된다. 加는 中世國語「더으」, 따라서 이 單語는 現代國語의 「더욱」에 해당한다.

下蟻時乙良 一造心(蠶 22a), 變黃爲去等 一減食爲齊(蠶 26b)

- (54) [必于] 後代 資料의 한글表記에서 「비록」으로 解讀한 바와 같이 中世國語「비록」(雖)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의 必은 音讀字이다.

一數多爲良置(蠶 38a)

- (55) [仍于] 위의 「加于」와 같은 構成이다 仍은 中世國語「지출」(因), 「仍于」는 그 派生副詞「지즈로, 지즈루」다. 「用良」과 똑같이 對格助詞 뒤에 나타나서, 現代國語「으로 말미암아」를 뜻한다.

互相當擊乙一(蠶 28a), 雨露濕潤乙一(蠶 36b), 不淨桑葉乙 給食爲乎等一(蠶 40a)

- (56) [追乎] 中世國語「조초」에 해당한다. 動詞「 좇一」(追)에서 派生된 副詞다. 그러나 中世國語 한글文獻의 「조초」와 똑같이 動名詞에 連結되어 이른바 後置詞로 쓰였다.

染疫爲乎一 檢舉治療何如(牛序 3a)

- (57) [宛如] 兒는 貌의 俗字, 「모양, 꼴」을 뜻한다. 中世國語의 「ຈ」이다. 如는 訓讀하여「담」의 派生副詞를 표기한 것이라 생각된다.

初眠起飽食蠶乙 前頭一分取(蠶 31b), 一前頭移置(蠶 38b)

- (58) [右如·右良] 後代資料에서는 똑같이「임의여」등으로 解讀하고 있다. 「임」은 中世國語「곰」, 「넙」(動動. 단, 「넙」은「넙」로 誤印)의 「넙」(前), 따라서「右如」는「위와 같이」의 뜻이다. 「右良」은「右如」보다 後代의 借字表記가 아닌가 한다. 大明律直解에서도「右良」은 보이지 않는다.

右如：一變色爲臥乎 蠶種段(蠶 16a)，一不冬爲在如中(蠶 18b)

右良：一畜染疫治療方法乙並只相考(牛序 2a)

- (59) [始叱] 中世國語動詞「비룻」(始)이 그대로 副詞로 쓰인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吏讀文에서 時間關係 單語에 連結되어 現代國語「부터」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이미「부터」가 그러한 것과 같이 文法化한 것이라 생각된다.

辰巳時一(自辰巳間 蠶 17a)

- (60) [還還] 中世國語「갓갓」(갓갓, 날날이)에 해당한다. 「가지」(種)를 反復하여 만들어진 單語다.

一平均加給爲齊(蠶 35a)；藥物一備給(牛序 1b)

- (61) [新丁] 中世國語「새려, 새로」(新)에 해당한다. 體言「새」에서 派生된 副詞다.

一修理溫暖蠶室內(蠶 20a)，一摘取好桑葉乙(蠶 21b)

- (62) [新反] 現代方言의 「새로에」(커녕)에 해당한다. 文法化하여 助詞와 같이 쓰인다. 「新丁」과는 다른 吏讀다.

其蛾以一 種子至亦 刮取棄置(其蛾與子皆不用 蠶 7a)

- (63) [并以] 「아울」에서 派生된 中世國語 副詞「아오로」에 해당한다. 이는 54 「仍于」의 于와는 달리 그 末音節 全體를 표기한 것이다. 「아울러, 모두」를 뜻한다.

迷惑人亦 蠶身落火傷損非無 一使內安徐(蠶 25b)

- (64) [不冬] 後代 吏讀資料의 한글表記에서 「안들」등으로 解讀되어 있다. 冬이 그 末音節의 表記라 생각된다. 그러나 中世國語의 「아니」에 해당하는 否定語다. 다만 動詞「爲一」앞에 쓰인다. 單獨으로 쓰인 경우도 있지만, 表記上「爲」의 省略인 경우에 한한다. 이 점이 다음「不喻」와 다른 用法이다.

互相連接一爲只爲(蠶 1a)，飲水一(蠶 1a)；傳染一爲臥乎事(牛 6a)，病始作一者乙良置 灌注爲乎事(牛 3a)

- (65) [不喻] 後代 吏讀資料에서 「안인지」등으로 解讀하고 있다. 喻가 그 末音節의 表記라면, 不은「不冬」과 같이「안」의 表記라 할 것이다. 中世國語「아니」에 해당하는데 繫辭「是」앞에 쓰인다. 單獨으로도 쓰이지만, 繫辭를 表記에서 省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撮要和 牛疫方에서는 助詞「分」에 連結된 用例만 있으나, 用法은 같다.

後次乾死分一 生長不得(蠶 10a)，蠶尊良中 溫涼適中分一 蠶性偏宜(蠶 15a)；牛叱分一六畜染疫治療之方散載亦多爲白置(牛序 2a)

- (66) [不得] 中世國語의 不能을 뜻하는 否定語「못」에 해당한다. 中世國語에서 得이「실」이므로, 不得은「못」과「실」의 合成語를 표기한 것이 아닌가 한다.

種子良中 合當一(蠶 2b)，禽虫傷食一爲只爲 以土埋封(蠶 5b)；諸方文字……解見一叱分不喻 藥名乙良置 解知一爲白沙餘良(牛序 2)

- (67) [安徐] 禁止를 뜻하는 否定語, 中世國語「말」에 해당한다. 動詞「爲」앞에 나타난다. 單

獨으로도 쓰이나, 「爲」의 省略이라 할 것이다.

麻繩以 繁掛一爲乎矣(蠶 10a), 厚衣綿絮以 包裹一(蠶 10a); 着露草乙良 養飼一爲齊(牛 14a)

(68) 「且除」 다른 文獻에 보이지 않는 吏讀이다 文脉으로 보아 위 「安徐」와 같은 뜻으로 쓰였고, 中世國語에서 呂가 「안주」인 점에서 다같은 否定語라 생각된다.

養蠶人亦 貧心以 數多養飼一(愼莫貪多 蠶 22b)

(69) 「乃終, 萬一, 字細·子細·仔細, 千萬, 爲先, 暫間」 이들은 漢字語이지만, 中世國語의 한글文獻에서 한글로 표기되는 점에서 副詞類 吏讀로 다루어 둔다. 여기 「字細, 子細, 仔細」가 通用되는 것이 注目된다. 吏讀로 다루는 한 根據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러한 副詞의 用例만 보여 두기로 한다.

乃終 眠起置一齊(蠶 16b), 乃終全失(蠶 22b)

三八日亦 萬一沈陰爲去等(蠶 9a); 萬一飼之爲在如中 生病爲臥乎事(牛 14a)

蠶食給後每如 字細看審(蠶 25a), 蠶矣變色乙 子細看審(蠶 26a); 仔細 審見(牛 7b)

千萬 羽以 掃下安徐爲乎矣(蠶 21b), 千萬……遙擲安徐爲彌(蠶 28a)

眠睡及懶惰乙 爲先禁斷爲遣(蠶 25a)

暫間 風日乙 照見令是乎矣(蠶 12b)

IV. 用言類의 吏讀

用言은 語幹과 語尾로 分析하여 說明한다. 語尾는 先語末語尾와 語末語尾로, 語末語尾는 다시 定動詞, 副動詞, 動名詞(이른바 冠形形을 포함) 語尾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先語末語尾와 語末語尾의 區分은 대개가 音節單位로 표기된 吏讀에서는 거의 不可能한 경우가 많다. 여기서 같이 다루기로 하고, 各項의 語尾에서 그 사실을 說明하기로 한다. 먼저 語尾에 대하여, 대체로 定動詞, 副動詞, 動名詞의 語末語尾에 이어서 先語末語尾의 순으로 다루도록 한다. 다만 하나의 借字가 相異한 語尾의 表記에 사용되었을 때에는 한 項目에서 다룬다.

1. 語 尾

(70) 「齊」 빈번히 쓰이는 語尾다. 語幹에 직접 速結 되는데, 사실을 說明하는 機能을 갖는다.

後代 吏讀資料의 한글表記에서는 音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中世國語에서 그에 해당하는 語尾를 찾을 수가 없다. 古代國語를 反映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 이 「齊」는 文末에 쓰이지만 接續의 機能도 있다. 여기서는 文末의 例만 들어 둔다. 그것이 표기한 形態와 機能의 究明은 後日로 미룬다.

極暖爲只爲 看飼爲一(蠶 1b), 兩頭面方者 雌是一(蠶 3b), 極寒爲只爲 使內一(蠶 1b)

- (71) [如] 定動詞語尾가 間接話法으로 사용된 경우에 나타난다. 用例가 繫辭에 連結된 것뿐이다. 「이라」(고)의 뜻이다.

厚紙背良中 某日所出是一開寫爲乎矣(蠶 6a)

그런데 이 借字는 語尾 「一던」의 表記에도 쓰인다. 中世國語 先語末語尾인 「一더」와 動名詞語尾 「一」의 連結을 표기한 것이다.

養蠶爲一 箔上良中(蠶 39b), 臘月淮脩爲有一 萊豆乙 沈水生芽令是置(蠶 34a)

- (72) [遣] 中世國語 副動詞語尾 「一고」에 해당한다. 가장 빈번한 用例를 보이는 語尾인데, 직접 語幹에 連結된다.

喫破爲一(蠶 1a), 雌是一(蠶 3b), 中斷使內一(蠶 4a), 交合令是一(蠶 7a); 灌注爲一(牛 13b)

- (73) [良] 中世國語 副動詞語尾 「一아／어」에 해당한다. 動詞 「爲一」에 連結된 語形만 보여준다. (派生副詞에 나타나는 「良」에 대하여는 48~52를 참조할 것이다.)

必于數多爲一置(蠶 38a), 各別眼起爲一沙(蠶 6a); 待冷爲一(牛 1a), 水煮爲一(牛 2b)

撮要에서는 이 「良」을 省略表記하는 경우가 많다. 補助詞가 連結된 경우도 그러하지만, 이 語尾단 連結된 경우는 例外없이 省略되어 語幹만 표기되어 있다. 그 책의 한 特徵이라 하겠다. 특히 吏讀 「爲沙 餘良」는 이 책에서 처음으로 文證된다. 注目に 값하는 것이다.

執舉爲 除去尿染爲如可(蠶 7a), 一處卷置爲 桑皮索以 上頭乙結束(蠶 11b), 不緊爲沙 餘良(蠶 25b)

- (74) [彌] 中世國語 「一며」에 일치한다.

圓厚體大爲一(蠶 3b); 驅入爲一(牛 14a), 廣求治療爲白乎一(牛序 1b)

- (75) [尼] 中世國語 「一니」에 완전히 일치한다. 中世國語의 口訣에는 흔하나, 當時의 吏頭로는 나타나지 않는 語尾다. 이 책들에서도 唯一例가 있을 뿐이다.

須只...飛介上良中 造作者乙沙 擇取爲乎喻一(蠶 3a)

- (76) [良音可] 中世國語에서 可能性을 뜻하는 副動詞語尾 「一암직」(可)에 해당한다. 可는 訓讀字다.

桑葉亦 養蠶爲一 發生爲去等(蠶 17)

- (77) [良尔] 現代國語 「인즉, 이므로」를 뜻하는 副動詞語尾로, 繫辭 「是一」에만 連結된다. 尔은 吏讀에 쓰이는 특이한 借字다. 口訣表記에서는 彌의 略字로 쓰인다.

困餓所致是一 小小給食爲良沙 傷損不冬(蠶 25b), 破毀爲臥乎事是一(蠶 39b)

- (78) [亦] 現代國語 「一」지라, 「一」것인 바」를 뜻하는 副動詞語尾다. 「在」와 「有」 뒤에만 連結된다.

因此加減爲臥乎在一(蠶 23b), 薦段 空石皮是置有一(蠶 15b); 啓下是白有一(牛序 1a)

그런데 이 借字가 命令法의 間接話法을 나타내는 데도 쓰인다. 「一라(고)」를 뜻하는 語尾의 表記다.

皆是鄉藥易得之物 不足爲白去等 道以隨淮備用使內一 受教爲白有置(牛序 1b)

- (79) [而亦] 中世國語 「一마론」에 해당하는다. 위 「亦」와 같이 大明律直解에서는 「在, 有」에連結되나, 撮要에서 「在」에連結된 用例 하나만 보인다. 그 語尾의 分析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而의 字釋은 이와 連關 있을 것이다.

族蠶段 鄉俗所向 隨土各異爲在一 蠶薪內外 寒濕蜜熱不冬爲只爲 使內乎所 最爲切要(蠶 40b)

- (80) [而叱] 文脈으로써 中世國語 副動詞語尾 「一면」을 뜻한다. 처음 나타난 吏讀다. 위의 「而亦」와 連關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課題다.

蠶種紙乙 覆於其上爲一 蠶子亦聞香自下(蠶 21b), 桑葉乙 茅上均散 過暫時爲一 蠶亦食桑向事以 茅上良中 並只移上(蠶 38b)

- (81) [如中] 條件을 뜻하는 副動詞語尾로서, 「一라면」의 뜻이다. 繫辭와 動名詞語尾 「在」에連結된다. 後者에서는 繫辭의 省略을 생각 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일치하는 한글表記 語形을 中世國語에는 찾을 수 없다. 語尾 「一면」으로 代替되고, 表記로만 남아있는 語尾라 하겠다.

養蠶人是一(蠶 25a), 養飼爲在一(蠶 22b); 塗之爲在一(牛 6a)

- (82) [如可] 中世國語의 「一다가」에 완전히 일치하는 語尾다.

除去尿染爲一(蠶 7a), 一一排置爲有一(蠶 3b), 宜涼爲等如 使內一(蠶 35a); 放養爲一(牛 14a)

- (83) [昆] 中世國語의 「一곤」에 해당하는데, 現代國語의 「一는데, 一니」의 뜻을 가진 語尾다.

便亦多斃 至爲可慮是白一(牛序 1b), 必應無驗可慮是白一(牛序 2b)

- (84) [置] 앞의 補助詞 「置」와는 달리, 어떤 動作이나 狀態의 結果에 의하여 다른 動作이 일어남을 나타낼 경우에 쓰인다. 즉, 「하여 가지고, 무엇이 되어서」를 뜻하는 語尾다. 語幹 「爲, 是」에 연결되어 單獨으로도 나타나나, 「有」와 더불어 나타나기도 한다.

右雌雄高致乙 爲半各別摘取爲一… 互相連接不冬爲只爲 一一排置爲有如可(蠶 3b), 薦段空石皮是一有亦 蠶室明暗溫涼 及上薪時不可闕(蠶 15b)

- (85) [去] 어떤 動作이나 狀態를 豫見하여 다른 動作이 일어남을 나타낼 때 쓰인다. 즉 「하게 되어서, 무엇이 되어서」를 뜻한다. 單獨으로도 助詞 「沙」앞에 쓰이지만, 「有」앞에도 나타난다.

其餘二種段 加于有害生病製治無術爲一 有等以 葉置不用(蠶 37a), 回行不下者段 殘病蠶子是一 有等以 並只棄置(蠶 22)

- (86) [去等] 中世國語와 現代國語의 「一거든」에 해당하는다. 빈번히 사용되는 語尾다.

初出爲去等(蠶 1b), 厚表紙是一(蠶 4a), 爲飾有一(蠶 29), 無一(蠶 29a); 始有爲一(牛 3b), 腫處有一(牛 7a), 始作爲有一(牛 3a)

- (87) [乃, 去乃] 中世國語 이래의 「一나, 一거나」에 해당하는다. 「去乃」의 去는 先語末語尾이겠으나 이 책들에서는 달리 例가 없으므로, 더 分析하지 않는다.

類肉是乃 類糞是乃 煎煮待冷爲良(牛 1a)

立置高掛爲去乃…各立長竿爲遺(蠶 11b)

- (88) [乎矣] 中世國語의 「一오디/우디」에 일치하는 副動詞語尾다. 여기 乎는 다음의 動名詞語

尾「乎」와 같은 借字로서 표기된 語尾 자체도 連關이 있으리라 생각되나 現在로는 확실하지 않다.

開寫爲一(蠶 6a), 照見令是一(蠶 12b), 相准使內一(蠶 4a); 治療爲一(牛 1a), 隨方治療爲白一(牛 1a)

- (89) 「乎」中世國語「一은／운, 一을／을」에 해당하는 動名詞語尾다. 附加語의 用法이지만, 副詞「追乎」앞에서는 名詞의 用法을 보이는 語尾다. 그런데 이 語尾는 文末에서 名詞「事」와 함께 結合되어 當爲를 뜻하는 定動詞語尾의 用法을 보인다.

造作爲一 高致(蠶 2a), 給食爲一 仍于(蠶 40a), 極凍爲一所(蠶 13a), 取出爲臥一 乙良(蠶 13a), 摘取爲臥一事段(蠶 2a), 陽物是一 等用良(蠶 1a), 薄紙是一 第亦中(蠶 4a), 使內一所(蠶 40b); 捉得爲一 兔頭(牛 10a), 染疫爲一 追乎 檢舉治療(牛序 3a), 灌注爲一事(牛 1a), 傳染不冬爲臥一事(牛 6a)

- (90) 「在」위「乎」와 같은 動名詞語尾다. 그 差異는 아직 明確하게 할 수 없다. 다만 時相에서 「乎」가 aorist 인 데 대하여 「在」는 完了를 뜻함과, 統合關係에서 둘이 다 體言 위에 쓰이나 「在」는 助詞 앞에 連結되어 體言과 같은 用法이 더 많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完了를 나타내는 것은, 「在」로 표기된 形態가 起源的으로 存在를 뜻하는 用言의 文法化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去」로 표기된 先語末語尾와의 關係 등 後考를 기다리기로 하고, ⁽¹²⁾ 여기 이 책들의 用例를 든다.

如指大爲一 平直木(蠶 7b), 知重爲一如中(蠶 4b), 合當爲一 果(蠶 6a), 成推爲一 乙良(蠶 7a), 身體完全肥好爲一 乙用良(蠶 4a), 造作不得爲臥乎一等以(蠶 37a); 塗之爲一如中(牛 6a), 使之依方治療爲白一 果(牛序 2a)

위에서 말한 「在」의 起源과 관련하여, 語幹表記의 借字만으로써 그 動名詞 形態를 표기하는 例가 있음이 注目된다. 「爲」와 「有」가 그것이다. 後代 한글 解讀과 같이 語尾「一」까지 표기하는 借字인 것이다.

就食爲樣是置有等以(蠶 36a), 製治無術爲去有等以(蠶 37a), 蠶箔上 鋪置草是去有等以(蠶 15a)

- (91) 「乙」中世國語 및 現代國語의 動名詞語尾「一을」에 해당한다. 助詞「分」의 連結까지 同一하다. 우리의 資料에서도 唯一例지만, 旣 곳에서 나타난 일이 없는 중요한 例다.

薪中蒸熱之病無一分不喻 高致置 堅實造作(蠶 35b)

- (92) 「只爲」하나의 動名詞語尾가 아니라, 現代 國語「기 위하여, 一도록」에 해당된다. 「只」가 動名詞語尾, 「爲」가 動詞語幹을 표기한 것이다. 이들이 언제나 結合되어 나타나므로 함께 다룰 뿐이다.

極寒爲一 使內齊(蠶 1b), 寒溫之氣 無一 使內(蠶 40a); 稍爲一作末(牛 7a)

- (93) 「等如」動詞「爲」에만 連結되어 나타난다. 現代國語「따위와 같이」에 해당한다. 中世國語「이트렛」(此等 月釋 IX 44a)의 「트렛」과 連關된 語尾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12) 실지로 大明律直解에서는 「在」와 「去」가 비슷한 分布를 보이는 것이다.

每月 初八十八二十八日爲一浴洗爲乎矣(蠶 8b); 上項 諸畜染疫治療大文乙 吏讀諺文爲一兩件解釋(牛序 2b)

- (94) [白] 中世國語의 謙讓法語尾 「-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機能은 中世國語와 같지 않고, 近代國語의 恭遜法語尾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敬語法變遷의 중요한 事實이라 할 것이다. 보통 「-습-」의 機能은 中世國語에서 謙讓法이었으나, 近代國語에서 恭遜法으로 變遷되었고, 吏讀의 「白」도 이와 같다고 믿어져 있었는데, ⁽¹³⁾ 中世國語의 吏讀에서 이미 恭遜法의 機能을 갖기 때문이다. 用例는 牛疫方의 序에 보인다. 그 一部分 들기로 한다.

隨方治療爲一乎矣 醫司所無之物隱 令本道監司廣求治療爲一乎旆 賣去藥材段置 皆是鄉藥之物 不足爲一去等 道以隨宜准備用使內亦 受教爲一有置 本道牛疫至今寢息不冬 便亦多斃至爲可慮是一昆(牛序 1b), 牛疫亦 平安一道叱分不喻 他道良中置 多有染斃之處爲一沙餘良 羊猪段置 京外染疫致斃亦多爲一去等(牛序 2a)

여기 語尾와의 連結表記에서 특이한 것은 「乎彌」다. 이 때의 乎는 先語末語尾의 末音을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語幹은 「爲」뿐 아니라 「是」에도 連結되어 있다. 이 語幹과의 連結에서도 알 수 있지만, 用例를 검토하면 모두 話者 스스로를 낮추는 恭遜法語尾임을 斷定하게 된다. 다만 「受教爲白有置」만이 謙讓法으로도 解釋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예와 같이 恭遜法으로 解釋함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 예들이 啓文이란 특이한 文體에 나타나는 점에서 謙讓法語尾의 全般的인 變遷을 말함은 速斷일지 모르나, ⁽¹⁴⁾ 16世紀의 吏讀에서 이미 「白」이 恭遜法語尾로 나타나는 事實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 (95) [臥] 中世國語의 先語尾語尾 「-느-」에 해당한다. 언제나 動名詞語尾「乎」와 함께 나타난다. ⁽¹⁵⁾ 그러므로 매우 制限된 分布를 보인다고 하겠으나, 단순한 表記의 問題일지도 모른다.

右如變色爲一乎 蠶種段(蠶 16a), 復生爲一乎事(蠶 9a), 因此加減爲一乎在亦(蠶 23b), 造作不得爲一乎在等以(蠶 37a), 取出爲一乎等用良(蠶 13a), 飢困氣弱爲一乎等仍于(蠶 27a), 摘取爲一乎事段(蠶 2a), 破毀爲一乎事是良尔(蠶 39b); 傳染不冬爲一乎事(牛 6a)

2. 語 幹

- (96) [爲] 中世國語의 動詞 「하-」에 해당한다. 漢字語에, 連結되어 動詞 혹은 形容詞를 만드는

(13) 이에 대하여는 다음論文을 참조할 것이다. 물론 謙讓法을 客體尊待法이라 하는 따위의 差異는 있으나, 中世國語謙讓法의 語尾가 恭遜法으로 變化하였다는 說明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許雄, 서기 15세기 국어의 “존대법”과 그 변천, 한글 128 (1961), pp. 5-62, 특히 pp. 50-51

(14) 이러한 「白」의 用例는 다른 16世紀의 啓文 資料에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1554年(明宗 9 嘉靖33) 11月 24日字의 李澤啓와 柳希春의 眉巖日記草에 보이는 1567年(明宗 22 丁卯) 3月 27日字의 掌謙院回啓, 1570年(宣祖 3 庚午) 12月 30日字의 辭職書狀 등등이 그것이다. 그 李澤啓는 敎荒撮要의 卷頭에 있는데, 「是白有亦, 爲白乎矣, 是白乎等用良, 是白齊」 등의 「白」이 바로 恭遜法語尾에 해당하는 吏讀인 것이다. 또 辭職書狀은 日記草 第5冊 위에 있는데, 「爲白如可, 爲白良族, 爲白只爲」등 恭遜法語尾로서의 「白」이 쓰여져 있다.

(15) 撮要에 「爲臥」의 用例가 있다. 전혀 특이한 例로서, 혹 「爲旆」의 誤字가 아닐까 한다. 後日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引用하여 둔다.

蠶種紙乙 覆於其上爲而叱 蠶子亦 聞香自下爲臥 千萬羽以 掃下安徐爲乎矣(蠶 21b)

用法도 同一하다. 다음이 그것을 말하는 例들이다.

桑葉叱分 喫破一遭(蠶 1a), 極寒一只爲使內齊, 初出一去等 極暖一只爲 看飼一齊(이상 蠶 1b)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語幹이어서, 거의 모든 語尾가 連結될 수 있다. 이미 語尾에서 出處가 밝혀졌으므로, 그 用例만을 다음에 보이기로 한다.

一齊, 一如, 一遭, 一良, 一良沙, 一沙餘良, 一彌, 一良音可, 一而叱, 一如可, 一置, 一去沙, 一去有等以, 一去等, 一去乃, 一乎矣, 一乎, 一乎所, 一乎等仍于, 一乎喻尼, 一在, 一在果, 一在乙良, 一在乙用良, 一在而亦, 一在如中, 一只爲, 一等如, 一白乎矣, 一白去等, 一白有置, 一白沙餘良, 一臥乎, 一臥乎所, 一臥乎在亦, 一臥乎在等以, 一臥乎事, 一臥乎等用良, 一臥乎等仍于, 一臥乎事是良余

(97) [是] 中世國語의 繫辭「이」에 해당한다. 用法이 같음을 다음 例가 보여준다.

蠶段 陽物一乎等用良(蠶 1a), 懶惰蠶矣 所作一齊(蠶 2a)

비교적 빈번히 나타나는 語幹이지만, 語尾는 多樣하지 못하다. 10餘語尾의 連結을 보일 뿐이다. 그 用例는 다음과 같다.

一齊, 一如, 一遭, 一良尔, 一如中, 一置有亦, 一去有等以, 一去等, 一乃, 一乎等用良, 一乎第亦中, 一白昆, 一白有亦

(98) [使內] 中世國語의 動詞「브리」에 해당한다. 뜻은 「行하—, 措處하—」다. 助詞「乙良」과 呼應하여 쓰이는 일이 많은데, 다음 例가 바로 그것을 말한다.

在紙時乙良 極寒爲只爲一齊上薪爲去等 極暖爲只爲一(蠶 1b), 浴水乙良 長流水 及井花水以 用一遭(蠶 8a)

繫辭「是」보다 頻度數가 적고, 또 語尾의 連結도 制限되어 있다. 다음이 그 用例다.

一, 一齊, 一遭, 一亦, 一如可, 一乎矣, 一乎所, 一乎第亦中

(99) [令是] 中世國語의 動詞「하—」의 使動인「시키—, 히이—」에 해당한다. 現代國語「시키—」의 뜻이다. 語尾의 連結도 매우 制限되어 있어서, 撮要에서 세 語形이 나타날 뿐이다. 다음이 그것이다.

雌雄蛾乙 交合一遭(蠶 7a), 萊豆乙 沈水生芽一置 晒乾作末(蠶 34a), 蠶種取出 暫間風日乙 照見一乎矣(蠶 12a)

(100) [有] 中世國語「이시—」(有)에 해당한다. 語尾「去等」이 連結된 語形만이 나타난다.

禽篩一去等 同篩以 微微篩過爲遭(蠶 29a), 萬一 西南風一去等(蠶 34a); 身體良中 腫處一去等 仔細審見(牛 7b)

그런데 이「有」는 다른 動詞와 合成되어 나타나는 일이 있다. 表記上으로는 語幹 또는 先語末 語尾「白」에 직접 連結되어 있으나, 中世國語「—아/어 이시—」와 같은 語形의 表記로 보인다. 中世國語「—아/어」에 해당하는 副動詞語尾「良」은 表記에서 省略되는 일(73 良 참조)이 있을 뿐 아니라, 그 用例를 牛疫方の 한글翻譯과의 對照로 알 수 있다. 그 例는 다음과 같다.⁽¹⁶⁾

(16) 「有」는 語尾「置, 去」를 連結한 用言과 함께 쓰이는 일이 있다. 이 경우 合成이 아니라 語句라 할 것이므로, 다음 用例와는 구별된다. 이 때 「等以」 앞에 쓰인 「有」는 動名詞語尾를 連結한 語形의 表記라 하겠다. 이에 대하여는 90 「在」를 참조.

彈子樣以 作丸日中晒乾爲一如可(디탄즈마티 비저 몰의여 듯다가 牛 4b), 病乙始作爲一去等(쇠병 처 업시작할제 牛3a), 啓下是白一亦(牛序1a), 受教爲白一置(牛序 1b)

(101) 〔無〕中世國語의 「없一」에 해당한다. 「有」보다는 많은 語尾가 連結되어 있다. 否定語「不冬」위에 나타난 用例도 있는데, 二重否定 곧 「없지 아니하一」로써 肯定이 된다. 그 語形을 보 인다.

一去等, 一只爲, 一乙分不喻, 一不冬(羣 9a, 13a, 17b)

V. 結 語

지금까지 撮要와 牛疫方에 나타난 吏讀을 蒐集하여 整理하고 說明하여 왔다. 모든 吏讀을 單語 또는 形態素를 單位로 하여, 널리 알려진 것까지도 用例를 明示하고 그 構成을 分析・解明하려 고 하였던 것이다. 전혀 새로운 事實이 없지도 않았으나, 大部分이 已往業績의 無用한 反復이라 할 內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장황한 說明을 감행한 것은 15世紀와 16世紀에 이루어진 두文獻의 吏讀을 정확하게 把握하려는 意圖에서였다. 그것은 또한 吏讀에 대한 研究가 무엇보다도 年代가 확실한 文獻이나 資料 하나하나에 쓰여진 吏讀의 實態를 把握하고 檢討하는 作業으로부터 始作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意圖에서 행해진 우리의 作業으로 中世國語의 두 文獻에서 그 吏讀의 實態는 어느 程度 드러났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單語인 吏讀의 統合에 대한 檢討가 결여되어 있다. 사실 用言類에 속하는 吏讀은 그러한 統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개개 單語에 대한 分析만으로 吏讀의 實態가 드러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의 單語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같은 文脈에서 省略되는 일이 많다. 가령 「爲良, 爲乎」이 典形的인 例다. 이런 省略에 대한 事實을 看過하고 實態를 把握하였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單語인 吏讀에 대한 形態分析和 함께 그 運用에 관한 研究도 要望되고 있다. 나아가서 吏讀로써 표기된 言語形式과 表記에 나타난 借字體系도 解明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作業은 극히 初步的인 基礎 作業이다. 基礎作業은 累積될수록 좋다. 다른 文獻에 대하여도 같은 作業이 행하여지기를 바라 마지 않는 것이다.